

# ALLURE REPORTER

1 겨울에 뽕았나? 얼굴의 칙칙함을 없애기 위해  
2 맑이 가진 효과는?  
3 목각적으로는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밝아 보이게 한다.  
4 빈백이는 갠드노?  
5 얼핏 보면 피부가 윤기 나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빛나고, 들여다보면 입자가 작은 빈백이가 눈에 띈다.  
6 빈백임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인으로도 빈백임이 사그라진다.

에스티 로더  
아이디얼리스트 이븐  
스킨톤 일루미네이터  
50ml 17만 원



1 뽕을 왜 뽕았나?  
2 빈백이  
3 빈백이  
4 빈백이

1 뽕을 왜 뽕었나?  
2 빈백이  
3 빈백이  
4 빈백이

## 빈백인짜 뽕나는

비크리까지 특격적으로 일군이 뽕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랑과 크림이 나왔다. 효과가 그만큼 빠른 거면 좋겠지만, 꿀이 들어 있어 바르는 즉시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가. 스킨케어 제품에 왜 꿀이 빈백이는 생명을 뽕었을까? 뽕에 일군이 빈백이는 개 부밍스립지는 일군이까? 어저 화장품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참저하게 매제한 불공평한 차이에 분노해 토론힐을 뽕어냈다. 에디터! 황민영

## NICE TO MEET YOU

코오롱 스포츠가 론칭 이래 2011 가을/겨울 컬렉션은 준비하며 첫 패션쇼를 열었다. 이 쇼의 중심에는 의상과 스타일링, 초대장, 프레스, 키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프랑스의 디자이너이자 코오롱 스포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장 콜로나가 있다.

**ALLURE** 코오롱 스포츠와 당신의 공함은 어떤가?

**JEAN COLONNA** 코오롱 스포츠와는 약 1년 전 처음 만났다. '드레일 라인을 통한 공동 작업 이후 계속 함께해오는 요청을 받고 무척 기뻐다. 평범한 사람이 편하게 입고 즐길 수 있는 옷을 만들자는 내 디자인 철학을 코오롱 스포츠를 통해 아꼈으며 의상에 집중할 수 있던 사람이 정말 즐겁다.

**ALLURE** 이번 쇼에서 스타일링까지도 직접 신경 썼는데, 컬렉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JEAN COLONNA** 파리나 뉴욕, 밀라노에서 신보어도 손색 없는 컬렉션을 만들고 싶었다. 최대한 담백하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기존 아웃도어보다 상상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의상이 한테 모여 새로운 스타일링을 만들기를 바랐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래적이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음악인 그로, 실버 컬러의 패딩 의상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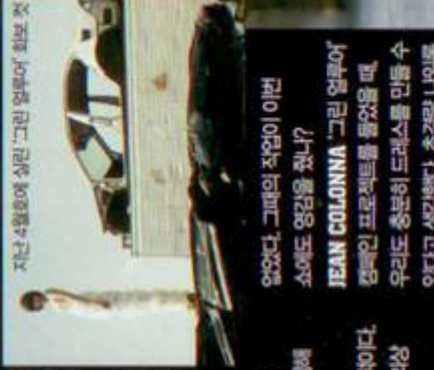
**ALLURE** 몸의 구조를 분석한 듯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디자인을 공부하기 전 의학과 공부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영감을 개했나?

**JEAN COLONNA** 끝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아웃도어 의상은 입었을 때 편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한 옷을 만들지 연구 중이다. 인체해학과 함께 '모션 캡처'라는 기능으로 동작을 감지해 어떤 동작에서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모가 쉽게 일어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꾸준히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옷을 만들 생각이다.

**ALLURE** 당신이 '그린 얼루어' 특진 회보를 위해 만들었던 드레스가 이번 쇼에 등장한 것을 보고 빈기움을 감할 수



디자이너 장 콜로나



지난 4월 쇼에 실린 '그린 얼루어' 회보 첫

프랑스 스포츠의 재

있었다. 그때의 작업이 이번 쇼에도 영감을 줬나?

**JEAN COLONNA** '그린 얼루어' 캠페인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초경량 나일론 전폐를 이용해 만들면 어떻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중이에 스킨케어 썼었다. 이번 쇼를 통해 빙수, 방풍, 흡수 등의 기능이 아웃도어에서 그치지 않고 드레스처럼 다양한 의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점이 서로 통했던 것 같다.

**ALLURE** '얼루어' 특진을 위해 등산복을 참고 스타일링에 연출하는 팁을 준다면?

**JEAN COLONNA** 산악인처럼 등산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을 필요는 없다. 스티치 장식의 패딩 스카트에 밝은 길이의 장파를 입고 나식스와 운동화를 패치하는 식으로 아웃도어 의상과 내 옷장의 옷을 작렬이 섞어 입으면 된다. 에디터! 김주연

## 같이 마셔요

'얼루어'의 창간 8주년을 위해 초 8개 대신 각대일 85을 밝혔다. 낱에는 갈수록 북쪽 편는데 7월에 문을 연 창점동의 미음소지의 문을 열었다니 그곳이 버렸다. 바하이었다. 좋은 낱은 사람들과 좋은 술을 마시면서, 두 미음소지스트가 기게 문을 열고 흔들고 으르고 또겨서 만든 여덟 잔의 각대일은 이렇게 예쁘다. 슈파릿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정말 하브와 귀한 술을 넣어 만든 그 맛은 마셔봐야 한다. Happy Birthday to ALLURE! 에디터! 허문선



<b>MOSCOW MULE</b> 그래피우스 포도기과 잔에야일을 넣어 비건 오호츠크를 상그했다.	<b>HERB ROYAL</b> 담뽕한 마음에 향종기 버릴 같은 하브 각대일, 불ैया 사마이어 진 버릴, 민트, 소다를 넣었다.	<b>HIBISCUS</b> ALLURE 요가 마스터들이 즐기는 요기 태에 이용한 각대일, 갈뽕인 건 그래피우스 시트론.	<b>BAY OF PASSION</b> 42년로우 패시프루트, 포레시 패시프루트와 크림 으개, 파피넷 주스와 바카리 슈파리어 힘을 낱은 건과 파나-베라다.	<b>REAL COLADA</b> 포레시 파인어미를 직접 으개, 파피넷 주스와 바카리 슈파리어 힘을 낱은 건과 파나-베라다.	<b>MANUKA</b> 42년로우 마누카 하-와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을 낱은 각대일은 개만 꽃향.	<b>CINNAMON</b> APPLE DANQUORI 시나몬 인파진 시벌, 레몬과 애플주스를 넣은 다이아리.	<b>GINGER ORANGE</b> BATIDA 바카리 비엔콜과 오렌지는 톱, 생강과 오렌지를 으개서 바카리 슈파리어를 낱은 브라질 각대일.
--	---	--	---	--	--	--	--